

고려시대 불교건축의 경향과 성격 발굴사지 및 사찰의 건립배경을 중심으로

General Characteristic of Buddhist Architecture of Goryeo Dynasty - based on the excavated temple sites and the motivation of construction

저자 (Authors)	석준호, 김성우 Seok, Joon-ho, Kim, Sung-Woo
출처 (Source)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2(7) , 2016.7, 75-84(10 pag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2(7) , 2016.7, 75-84(10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건축학회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23741
APA Style	석준호, 김성우 (2016). 고려시대 불교건축의 경향과 성격.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2(7), 75-8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시대 불교건축의 경향과 성격

- 발굴사지 및 사찰의 건립배경을 중심으로 -

General Characteristic of Buddhist Architecture of Goryeo Dynasty

- based on the excavated temple sites and the motivation of construction -

석준호* 김성우**
Seok, Joon-ho Kim, Sung-Woo

Abstract

Research on the Buddhist architecture of Goryeo Dynasty has not been active enough compared to the case of earlier development such as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Period.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general nature of temple architecture of Goryeo Dynasty focusing on the site condition of ruined temples as well as the background motivation of temple construction. The research was based on both excavational and literary materials. More than 40 excavated temple sites were investigated discussing on the issues such as dates of construction, scale of the site, locational condition, and so on. These information were analysed based on the viewpoints like background motivation of the temple construction and periodical pattern of change. This research, at least, can provide useful base of historical development for the future study of Goryeo Buddhist architecture. This research, too, is earlier step which will be followed by consecutive publications in the near future on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of Buddhist architecture of Goryeo Dynasty.

키워드 : 불교건축, 고려시대, 건립배경

Keywords : Buddhist architecture, Goryeo Dynasty, background motivation of construction

1. 서론

고려시대 불교건축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발굴자료 등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기초적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산발적인 연구 성과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는 연구 성과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려시대 사지로 판명된 유구들이 계속해서 발굴되었고 이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그동안 발굴된 사찰유구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사찰유구는 모두 41개소로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 전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41개소 유구

들을 통해서도 그 나름대로의 전체적 성격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굴된 폐사지의 창건시기, 규모, 지역, 입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사찰마다 다른 건립 배경과 함께 분석하여 고려시대 불교건축의 전체적 성격을 확인하려 한다. 사지는 배치분석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선 앞으로의 논문을 통해서 따로 다루려고 계획중이다.

지리적인 연구범위는 남한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사지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되 배치정보가 확인된 북한 소재 사지 3개를 포함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 이전에 창건되었지만 고려시대에 중창된 경우가 포함된다. 일단 발굴유구의 전체적 범위가 고려시대 사찰로 확인되는 경우는 고려시대의 사지로 받아들였다. 처음부터 사찰로 창건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창건되었다가 이후 사찰로 바뀌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극소수이지만 포함하였다. 즉 불교유적이라 확인되는 경우는 모두 포함하였다.

1차적인 자료로는 출간된 발굴보고서나 중간보고적 성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헌고증을 통하여 추가적인 역사적 정보를 확인하였고 발표논문, 서적, 기타 관련연구 자료도 필요시마다 활용하였다. 사찰의 건립배경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주로 확인 가능하였고 창건 및 중창시기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tone6024@naver.com)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사업이고(NRF-2011-0023532), 주저자(석준호)의 석사논문(Seok, J. (2015). *A basic study on layout analysis of Buddhist Temple sites in Goryeo Dynasty*, M.A. Thesis, Yonsei University, 1-108.)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는 발굴자료 및 문헌자료를 같이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사찰의 입지특성은 발굴보고서와 함께 지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각 사지의 건립배경과 대비시키는 방법과 함께 그 결과의 통계적인 분류분석의 방법을 겸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찾아지는 주요 흐름은 시기별 변화과정과 그 전체적 흐름을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2.1 고려 이전 시기의 불교건축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중 4C 후반으로 발굴된 여러 개 유구들을 통해서 그 배치계획의 전모가 전해지고 있다. 고구려의 사찰은 중앙의 팔각목탑(八角木塔)과 주위에 2개 내지 3개의 금당이 배치되었다. 팔각목탑이나 다금당 형식은 중국과 구별되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흐름으로 생각된다(Kim, 2014a). 백제의 사찰은 대부분 1탑1금당식의 사찰로서 중문(中門), 방형의 탑, 금당(金堂), 강당(講堂)이 일직선으로 배치되고 회랑(回廊)으로 둘러싸여 있다. 강당 양 옆에는 부속건물이 배치되는 경향이 보인다. 금당 뒤에 조성된 강당의 존재는 백제 사찰 배치에서 두드러지는 면이다. 7C 전반부터 목탑 대신 석탑이 조영되기 시작하였다(Kim, 2014b).

삼국 통일(668년) 이후 경주를 중심으로 금당 앞에 동, 서탑이 놓이는 2탑1금당식 가람이 출현했고, 탑은 본격적으로 석탑으로 조성되었다. 신라 말인 9C의 사찰은 그 이전시기에 비해 배치의 규칙성이 약해졌다. 탑의 규모가 작아지고, 쌍탑의 배치에서 대칭이 아닌 경우가 나타났으며, 익랑이나 회랑 등 이전시기의 사원에서 보였던 요소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Kim, 2007).

삼국시대의 사찰은 주로 도시 내부나 그 주변에 건립된 편이고 통일신라시대에 좀 더 인근 산지나 경사지로 그 영역이 확산되었다. 또한 소형 산지사찰을 조성한 흔적도 상당수 발견된다. 그러나 고려 이전의 사찰들은 역시 정형화된 배치를 갖고 회랑으로 둘러싸인 중심영역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 남향인 성격을 가지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당시 중국 사찰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왕실의 후원을 통해 지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통일신라의 사찰은 삼국시대보다 규모가 작아지고 귀족 내지 지방호족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았다(Kim, 1985). 이러한 흐름의 연장으로서 고려시대 사찰건축이 전개되었다.

2.2 고려시대 사원의 일반적 성격

신라 하대에 교학불교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선종(禪宗)의 구산선문(九山禪門)이 등장했다. 선종은 각 지방의 산속이나 계곡 등 수행하기 좋은 곳에 사원을 두고 왕실과 지방호족들의 후원으로 번성하였다. 선종과 더불어 풍수지리설이 성행하여 고려시대의 중요한 사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사찰의 건립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Kim, 2007).

고려 전기에는 삼국시대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여 큰 규모의 사찰을 건립하는 경우가 특히 활발하였다. 태조는 불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개경 주변의 10사와 전국 각지의 비보사찰(裨補寺刹)의 조성 등 각종 불사활동을 하였다. 또 선왕이나 왕후를 위해 그 초상을 모시는 진전을 사원에 세우고 기일마다 사원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등 사찰과 왕실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였다. 팔관회(八關會)와 연등회(燃燈會) 등 각종 불교의례가 발달하였고 국가적 행사로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광종 때부터 시행한 승과(僧科)도 개경의 사원에서 실시되었고 승과를 통과한 승려들에게는 법계(法階)를 부여하였다. 저명한 고승을 국가에서 왕사(王師), 국사(國師)로 임명하였고 각종 국사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였다(Han, 1998 ; Ryu, 2007).

고려시대에 불교는 전 계층에서 사회 및 생활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사찰은 예불 등 종교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망자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사찰에서 행해졌고 재해 시에 백성의 구휼 및 그와 관련된 구제활동에도 사원 및 승려가 참여하였다(Ryu, 2007). 다수의 사원들이 교통과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했고, 여기에는 숙박기능이 있는 여관시설이 부속되어 있었다(Lee, 2009). 이러한 경향은 국가가 불교사원을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각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Han, 1983).

2.3 선행연구

고려시대 사찰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개별적인 사지에 대한 연구이거나 일부 지역이나 특정주제를 다룬 논문들이다.¹⁾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참고가 되지만 본 연구와 같이 고려 사원의 전체적 동향을 다룬다는 목적에서는 차이가 크다. 고려시대 불교건축 전체에 걸친 연구 성과로서 Han과 Lee의 연구가 있다. Han은 그의 연구²⁾에서 고려시대 사원들이 조성된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각종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 책은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 사지의 건립배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문헌자료와 폐사지 자료를 통해 사찰의 공간구성을 연구한 Lee의 박사논문은³⁾ 고려시대 사찰의 건립배경과

1) Lee, S., & Chang, K., & Lee, S. (2007).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Layout Transition and main buildings of Godal temple site in Yeosu,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6(2), 59-78.

; Lee, J. (2004).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Bongjeopsa(奉業寺) in Ansung*, M.A. Theses, Sungkyunkwan University. ; Lee, J. (2014).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building layout of Seongjusa temple in Boryeong*, M.A. Theses, Hanyang University. ; Park, C., Kim, B. (2012). A Study on the 'Jung-Chang'(overlapping & extension) of the ruined temple site during the Koryo Era, *Proceeding of Annual Autumn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Architectural History*, 107-116.

2) Han, K. (199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Buddhist Temples of Koryo Dynasty(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Minjoksa.

3) Lee, C. (1997).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a buddist*

Table 1. List of Temple sites

Name of temple sites	Date of construction	Number of reconstruction	Location	Size(m ²)
Ingak temple site (麟角寺址)	643	2	Gyeongbuk	13,302
Silsang temple site (實相寺址)	828	1	Jeonbuk	22,100
Manbok temple site (萬福寺址)	United Silla	1	Jeonbuk	39,269
Gwangrim temple site (廣林寺址)	10th century	1	Gyeongbuk	16,274
Bowan temple site (普願寺址)	before 827	3	Chungnam	63,376
Bongjeop temple site (奉業寺址)	United Silla	3	Gyeonggi	41,284
Anyang temple site (安養寺址)	early 10th century	-	Gyeonggi	8,199
Godal temple site (高達寺址)	764	4	Gyeonggi	24,000
Wonhyang temple site (元香寺址)	8-9th century	2	Gyeonggi	15,000
Yeongguk temple site (寧國寺址)	United Silla	2	Chungbuk	3,000
Geodon temple site (居頓寺址)	9th century	1	Gangwon	25,339
Beopcheon temple site (法泉寺址)	8th century	1	Gangwon	30,052
Heungdeok temple site (興德寺址)	early 9th century	-	Chungbuk	1,984
Sungseon temple site (崇善寺址)	954	1	Chungbuk	62,118
Hyeeum temple site (惠隱院址)	1112	-	Gyeonggi	25,000
Seongju temple site (聖住寺址)	600	4	Chungnam	29,757
Cheondeok temple site (天德寺址)	8th century	1	Gyeongnam	5,600
Jangrak temple site (長樂寺址)	6-7th century	3	Chungbuk	10,155
Jigot-dong temple site (紙串洞寺址)	10th century	-	Gyeonggi	963.5
Jeon Seosan temple site (傳 서산寺址)	10th century	-	Gangwon	2,700
Bongrim temple site (鳳林寺址)	early 10th century	-	Gyeongnam	16,528
Seonwon temple site (禪源寺址)	1246	-	Incheon	11,540
Dong temple site (桐寺址)	late 10th century	-	Gyeonggi	3,910
Saja temple site (師子寺址)	Late Unified Silla and Early Goryeo	-	Jeonnam	1,512
Mabuk-ri temple site (麻北里寺址)	1068 or 1128	-	Gyeonggi	2,480
Anguk temple site (安國寺址)	Early Goryeo	-	Gangwon	1,590
Gibi temple site (祇毗寺址)	Late Unified Silla and Early Goryeo	-	Busan	12,728
Mulgeol-ri temple site (物傑里寺址)	United Silla	-	Gangwon	3,012
Jangneung-ri temple site (長陵里寺址)	middle 10th century	-	Gyeonggi	4,500
Heungwang temple site (興王寺址)	1067	-	North Korea	75,000
Jeongnim temple site (定林寺址)	early 7th century	1	Chungnam	8,000
Daewon temple site (大院寺址)	10th century	-	Chungbuk	8,112
Beophwa temple site (法華寺址)	828	1	Jeonnam	1,881
Bulil temple site (佛日寺址)	951	-	North Korea	35,000
Yeongtong temple site (靈通寺址)	918	1	North Korea	60,000
Jotap-ri temple site (造塔里寺址)	Three Kingdoms	4	Gyeongbuk	7,784
Hoeam temple site (檜巖寺址)	1377	-	Gyeonggi	34,800
Sujeong temple site (水精寺址)	12C	1	Jeju	9,000
Unju temple site (雲住寺址)	early 11th century	3	Jeonnam	1,980
Buldanggol temple site (佛堂골寺址)	Middle Goryeo	1	Gyeonggi	1,500
Yeongam temple site (靈巖寺址)	8-9th century	1	Gyeongnam	12,349

배치를 분석한 선례로서 본 논문에도 도움이 되었다. 특히 불일사지 등 북한 소재의 사찰에 대해 파악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논문 이후의 새로운 발굴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재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Hong & Kim은 발굴보고서의 배치도를 가지고 고려시대 사찰 중심영역의 배치구성에서 보이는 특성에 관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⁴⁾ 이는 매우 중요한 연구

사례이나 본 논문과 같이 발굴된 사지 정보를 총망라 한 경우가 아니며 분석의 관점이 달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찰의 중심영역이 아닌 부속영역에 관한 연구로서 부도전(浮屠殿)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분석한 Park & Kim의 논문⁵⁾은 앞으로의 연구에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고려시대 사지 현황

본 논문은 사지의 위치, 규모, 입지, 건립배경 등의 문

temple in Koryo Dynasty (高麗時代 寺刹建築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4) Hong, B., & Kim, J. (2010). The Study on the Change of main cluster Layout in Buddhist Temples of Koryo Dynasty ; Architectural Historical approaches (고려시대 사찰중심영역 배치변화의 건축고고학적 고찰), *Proceeding of Annual Spring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Architectural History*, 167-178.

5) Park, M., & Kim, W. (2007). A Study on Formation and Transition of the Buddhist Stupa's Build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3(10), 105-112.

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발굴자료와 함께 문헌자료를 중요시했다. 연구대상이 되는 41개의 사지 중에 38개는 남한에 존재하고 영통사지(靈通寺址), 흥왕사지(興王寺址), 불일사지(佛日寺址)의 3개 사지는 북한의 개성 부근에 소재한 사지이다. 연구대상 사지들의 이름과 창건시기, 중창횟수, 위치, 규모 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정보는 발굴조사보고서, 각종 문헌자료, 금석문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파악하였으며 그 파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찾아진 근거에 입각하여 추정하였다.

사지의 규모는 사찰의 발원세력이나, 사찰의 위세, 건립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표에는 사찰의 전성기 때 최대 규모를 기준으로 명시하려 하였으나 발굴상태에 따라서는 전체규모가 불확실한 사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근거를 활용한 추정과정을 포함한 대략적인 윤곽일 수 있음을 밝힌다.⁶⁾

연구대상 외에도 고려시대 사지로 생각되는 유구들이 더 있다. 그러나 발굴로 드러난 유구의 배치가 불분명하거나 아직 전체의 극히 일부만 발굴되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 사지들에 대한 내용을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으나 앞으로의 발굴정도 진행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으므로 Table 2에 사지 이름만 따로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 한다.

Table 2. List of Temple sites not included in this Research

Name
Samcheon(三川寺址), Gulsan(堀山寺址), Gaetae(開泰寺址), Gacheung(開興寺址), Jeangto(淨土寺址), Gaya(伽倻寺址), Heungnyeong(興寧禪院址), Changrim(昌林寺址), Anheung(安興寺址), Buin(符仁寺址)

4. 건립배경 및 성격

고려시대의 사찰은 사찰마다 건립주체나 목적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찰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된다. 대부분 사지들의 건립배경은 문헌자료나 출토 유물을 통해서 확정 내지 추정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려시대 사지를 건립배경에 근거하여 Table 3에 정리했다.

Table 3. Number of Temple sites by different functions

Function	Jinjeon	Hasanso	General	Total
Temples	6	11	24	41

*Jinjeon: Jinjeon temple (眞殿寺院)
 Hasanso: Hasanso temple (下山所)
 General: General temple

4.1 진전 사원(眞殿寺院)

고려가 불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와 왕실 등 지배계층이 대표적인 건립주체가 된다. 왕실에서는 선왕이나 왕후 및 왕실종친을 기리기 위해 초상이나 조각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는데 도성의 경령전(景靈殿)⁷⁾과 불

6) 전체 사지가 발굴된 사지는 발굴된 전체규모를 넣었고 그 이외에 부분적으로 발굴된 사지는 지형적 범위나 문헌, 비문기록을 통하여 규모를 추측하여 Table 1에 포함시켰다.

교사원에 설치된 별도의 진전⁸⁾에서 제사가 거행되었다(Han, 1998). 왕의 진영이나 소상을 사찰에 모시는 관행은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⁹⁾ 고려의 진전사원에는 선왕의 영정을 모시기 위한 진전과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었다(Lee, 1997; Park, 2012). 또한 영통사처럼 한 사원에 여러 왕의 진영을 같이 모시는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의 왕실 진전사원들은 수도인 개경에 조성되었지만 몇몇은 지방에 조성되었다. 문헌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진전사원은 43개로 이 중 본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5개이다. 선원사는 왕실종친은 아니지만 무신정권기의 최고 권력자이자 왕실의 외척인 최우(崔瑀)의 원찰¹⁰⁾이었으므로 대상에 포함되었다.¹¹⁾ 5개의 진전사원과 선원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Table 4¹²⁾에 소개하였다.

Table 4. List of Jinjeon temples (眞殿寺院)

Name	Deified person	Sect	Founder	First built
Bongseop (奉業寺)	King Taejo (太祖)	-	-	early 10C
Yeongam (靈通寺)	King Taejo (太祖) and Others	Hwaum	King Taejo	918
Bulil (佛日寺)	Queen Sinmyeongsunseong (神明順成王后 劉氏)	Hwaum	King Kwangjong	951
Sungseon (崇善寺)	Queen Sinmyeongsunseong (神明順成王后 劉氏)	Hwaum	King Kwangjong	954
Heungwang (興旺寺)	King Munjong (文宗)	Hwaum	King Munjong	1067
Seonwon (禪源寺)	Choi Wu (崔瑀)	Zen	Choi wu	1246

4.2 왕사 · 국사의 하산소(下山所)

고려시대에는 저명한 고승들을 왕사(王師)와 국사(國師)로 책봉하거나 입적 후에 추봉하여 대우하였다. 왕사, 국사 제도는 고려시대 내내 지속되어 이후 조선 태조 때까지 이어졌다. 왕사는 불교계를 통합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고 국사는 왕사에 비해 상징적인 역할을 한 경

7) 고려시대 정궁인 연경궁(延慶宮) 내에 있던 전각으로 선왕의 어진과 신위를 모신 곳이었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1).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istory*, Gyeongryeong-jeon (景靈殿) from <http://encykorea.aks.ac.kr>).

8) 고대에는 불, 보살상 뿐 아니라 조사의상이나 왕의 영정, 산신 등이 모두 하나의 금당 안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이후 조사당이나 영전, 산신각 등으로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Lee, C., & Lee, K. (1998). Study on Buddhist sanctum and enshrinement of statue in Koryo Dynas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4(7), 131-133).

9) 이에 관한 것은 영묘사(靈廟寺)에 선덕여왕의 소상 내지 진영을 모셨던 내용이 최초로 확인된다. 또한 곡사(鶴寺)의 사례에서 금당과 별도의 당우를 조영하여 왕의 진영을 모셨음이 확인된다(Park, 2012).

10) 『Goryeosa(高麗史)』, 卷 129 列傳 42, 叛逆 3, 王命移忠獻眞于昌福寺, 怡眞于禪源社, 叅上·叅外·別監及文武官各二十員, 導從如移太祖眞儀.

11) 왕 이외의 귀족들도 사찰 내에 별도의 건물로 원당을 설치하 사례들이 있었다(Lee, 1997).

12) Table 4는 Han(1998)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우가 많았다(Park, 2006). 국사나 왕사는 책봉이나 은퇴 시에 왕실에서 하산소¹³⁾를 지정하여 주었는데 대개 하산 시나 입적 후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다. 원(元) 강점기를 제외하면 이미 지정된 하산소 사찰을 중복하여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각 종단의 균형과 독자성을 유지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결과였다고 보인다(Han, 1998). 하산소 사찰에는 부도탑(浮屠殿)과 탑비(塔碑)가 별도로 건립되어 있고¹⁴⁾ 부도전이나 조사당(祖師堂) 등 고승과 관련된 건물들이 조성되어 있다(Park & Kim, 2007).

진전사원들이 주로 개경에 밀집해 있었던 것과는 달리 하산소로 지정된 사찰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서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국에 국사가 주지하는 상징적인 사찰들을 조성함으로써 중앙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Han, 1998).

문헌과 금석문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나말여초부터 여말선초까지의 하산소 사찰은 45개가 확인되고 본 연구 대상 사지 중에서 11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 성주사, 실상사, 봉림사 세 곳은 통일신라 말기의 국사들이 주석하여 입적한 사찰이다. 개성의 영통사는 왕실의 진전

Table 5. List of Hasanso temples(下山所)

Name	High priest	Sect	Date of monument
Seongju (聖主寺)	Nanghye (朗慧和尚 無染)	Zen	After 890
Silsang (實相寺)	Jeunggak (證覺大師 洪陟)	Zen	893
Bongrim (鳳林寺)	Jingyeong (眞鏡大師 審希)	Zen	924
Godal (高達寺)	Wonjong (元宗大師 璣幽)	Zen	975
Bowon (普願寺)	Beopin (法印國師 坦文)	Hwaum	978
Yeongam ¹⁵⁾ (靈岩寺)	Jeokyeon (寂然國師 英俊)	Zen	1023
Geodon (居頓寺)	Wongong (圓空國師 智宗)	Zen	1025
Beopcheon (法泉寺)	Jigwang (智光國師 海麟)	Yuga	1085
Yeongguk (寧國寺)	Wongak (圓覺國師 德素)	Cheontea	1180
Ingak (麟角寺)	Bogak (普覺國師 一然)	Zen	1295
Hocam (檜巖寺)	Seongak (禪覺王師 惠勤)	Zen	1377

13) 하산소는 국사·왕사의 사후에도 그 문도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종단의 세력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점의 역할을 하였다. 국왕은 사세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무명의 사원을 하산소로 지정하고 같은 사원을 중첩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Han, 1998).

14) 부도탑과 탑비는 왕사·국사의 입적 후 문도들에 의해 국왕의 재가를 받아 세워졌다(Han, 1998).

15) 적연국사 영준(寂然國師 英俊)은 입적 후 국사로 추봉된 경우로 생전에 대선사(大禪師)의 승계를 가진 고승이었다. 영암사(靈岩寺)는 통화(統和) 29년(1011년) 국사가 몰려날 때 머물도록 지정된 곳이므로 하산소 사지에 포함했다(Gyeong-sang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2013). *Yeongam temple site located in Hapcheon-gun II*(陝川 靈巖寺址 II), 13-15).

사원으로 조성되었지만 문종의 왕자이자 국사로 추존된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을 모신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일단 진전사원에 포함시켰다. 하산소 사찰의 위치, 책봉된 고승이름, 종파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5¹⁶⁾와 같다.

4.3 일반사찰

진전사원과 하산소 사찰을 제외한 24개 사찰은 일반적 인 용도 외에 별도의 건립배경이나 사찰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과주 혜음원지(惠蔭院址)는 당시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길목인 혜음령(惠蔭嶺)에 위치한 사찰이자 왕실별궁이었다. 또한 남쪽 별도의 영역에 길가던 백성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휴식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The Buried Cultur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2006). 혜음원과 같이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사찰로서 숙박시설의 기능을 겸한 원(院)¹⁷⁾을 운영했던 사찰들이 있다. 대개 이러한 원은 사찰과 인접하여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 대상 사지 중에서는 대원사지(大院寺址), 마북리사지(麻北里寺址), 광림사지(廣林寺址)가 이에 해당한다.¹⁸⁾

흥덕사지(興德寺址)의 경우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이 1377년에 서원경(西原京: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Cheongju University Museum, 1986). 이는 활자로 책을 간행하던 공간이 사찰에 있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사찰이 종교적 목적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시설의 용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 창건 및 중창시기

5.1 창건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어 1392년 멸망하기까지 약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 고려 초기의 사회는 중앙정부의 힘이 아직 충분히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삼국 시대의

16) Table 5는 Han(1998)의 표를 참조,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다.

17) 원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편의시설을 말하던 숙박시설로 교통로 상의 요충지에 위치하였다(Hanshin University Museum. (2003). *Mabuk-ri temple site in Yongin* (龍仁 麻北里寺址), 179.).

18) 사지나 그 부근에서 원(院)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굴되었고 관련내용이 각 보고서에 실려있다. (Cheongju University Museum. (1992). *The 4th Excavation Report on Jungwon Mireuk-ri Temple Site* (中原彌勒里寺址 -4次發掘調查報告書-). ; Cheongju University Museum. (1993). *The 5th Excavation Report on Daewon temple site* (大院寺址, 彌勒大院址 - 5차 발굴조사보고서-). ; Hanshin University Museum. (2003). *Mabuk-ri temple site in Yongin* (龍仁 麻北里寺址). ; The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2014). *Historic site of Gyeontan-ri Mungyeong* (開慶大灘里 遺蹟 I)).

Table 6. Number of Temple sites by Construction date

Construction date	Number of temples		Total
Before 9C	11		11(26.8%)
9C	6	4	22(53.7%)
10C	12		
11C	2	2	6(14.6%)
12C	2		
13C	1	0	2(4.9%)
14C	1		

혼란의 여파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면 고려의 건국은 10C이지만 불교건축에 대해 9C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창건은 9C로 올라가지만 고려시대에 중창되어 고려시대의 사찰로 보는 사례가 포함된다.

Table 6에 의하면 41개소 중 9C 이전에 창건된 사찰이 11개소, 9C 창건 사찰이 6개소, 그리고 10C에 창건된 사찰이 12개소다. 연대가 불확실하여 9-10C에는 창건된 것으로 보이지만 더 자세한 연대를 알 수 없는 4개소까지 합하면 33건으로 이는 전체의 80.5%를 차지한다. 그 중에 9-10C에 건립된 사찰은 22개소로서 전체의 53.7%에 해당한다. 고려 건국 이후에 건립된 사찰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해보면 20개 사지 중에 60%인 12개가 고려 초인 10C에 창건되었다. 반면 고려 말에 해당되는 13-14C에는 하나씩의 사찰만이 건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의 건국 이전부터 있었던 사찰이 중창되어 고려 때 운영된 경우는 17개로 총 41개 중 약 41.5%이다. 국가가 바뀐다고 해서 사찰도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현상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개국 초기인 10C에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의 대부분이 건립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 태조가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켰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태조는 개경 10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불사를 축조, 운영하였다.¹⁹⁾ 이후 태조는 혼요십조를 통해서 무분별한 불사를 금하였지만 후대에도 현화사나 홍왕사 등 왕실이나 귀족들에 의해 많은 사찰들을 조성한 사례들이 있었다(Lee, 2006).²⁰⁾ 그러나 11C 이후에는 이미 전국 각지의 중요 위치에 다수의 사찰들이 세워져 특별한 이유 없이 사찰을 새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7. Number of temples by Function and Construction date

Function	Before 9C	9-10C	11-12C	13-14C	Total
Jinjeon	1	3	1	1	6
Hasanso	6	4	0	1	11
General	4	15	5	0	24
Total	11	22	6	2	41

사찰의 창건시기를 4장에서 구분한 사찰의 건립배경에 따라 분석해볼 수 있다.(Table 7) 진전사원은 나말여초인 9-10C에 6개 중 3개의 사찰이 창건되었다. 진전사원의 대부분이 개경의 사찰임을 감안할 때 고려 초에 대대적

19) 태조는 이후 15개의 사찰을 더 창건하여 수도 개경에 모두 25사를 창건하였다. 개경 사찰의 건립 배경은 새로운 도시계획의 일환이거나 호국사상, 비보사상 등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Lee, 2006).

20) 수도 개경의 사례로만 보면 태조 이후에 40여개의 사찰이 추가로 조성되었다(Lee, 2006).

인 불사가 일어난 것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전사원의 경우 고려 말까지 꾸준히 창건사례가 나타난다. 한편 하산소 사찰은 회암사를 제외하고 모두 10C 이전에 조성되었다. 이는 하산소의 지정이 기존의 창건된 사찰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산소를 위해서 굳이 새 사찰을 지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해할 수 있다. 일반사찰 역시 대부분의 사찰이 10C 이전에 건립된다. 고려 말에 해당하는 13-14C에는 진전사원이 1건 하산소가 1건만 창건되고 일반사찰의 창건은 전혀 없었다. 두 세기의 기간 동안 사찰이 거의 창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눈여겨 보아야할만한 일이다.

5.2 중창

고려시대 사찰의 중창시기는 각종 문헌자료와 폐사지 유구, 유물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다. 각 사지의 발굴보고서에 소개된 중창시기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중창시기는 창건시기에 비해 더 고르게 분포된다. 중창은 있는 사찰을 개·보수 및 확장하는 것이므로 창건에 비해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쉽게 이해가 된다. 다만 고려 중엽에 해당하는 11-12C에 중창사례가 많은 것이 주목된다.

Table 8. Number of Temple sites by Reconstruction date

Reconstruction date	Number of temples		Total
Before 9C	3		3(7.0%)
9C	3	2	9(20.9%)
10C	4		
11C	8	2	21(48.8%)
12C	11		
13C	2	6	10(23.3%)
14C	2		

Table 8의 사찰의 중창시기를 건립배경에 따라 재정리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건립배경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11-12C에 많은 중창이 이루어진 것이 뚜렷하다. 하지만 그 중 하산소의 경우 사찰수가 11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히 많은 중창 건수를 보인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왕사나 국사의 하산소를 지정하면서 대규모로 중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¹⁾

대체적으로 불 때 고려 사찰은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10C에 가장 활발히 창건되었고 11-12C에는 중창활동이

Table 9. Number of temples by Function and Reconstruction date

Function	Before 9C	9-10C	11-12C	13-14C	Total
Jinjeon	0	1	3	1	5
Hasanso	1	5	8	5	19
General	2	3	10	4	19
Total	3	9	21	10	43

21) 무명의 지방사원이 하산소로 지정되고 사원전을 받는 등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원이 왕사·국사와 그 문도들을 수용할 능력을 갖추고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을 중창의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중창으로 인해 규모가 확대된 하산소 사원은 문도, 신도의 수용능력과 함께 경계기반도 점차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Park, C., & Kim, B. (2012). A Study on the 'Jung-Chang'(overlapping & extension) of the ruined temple site during the Koryo Era, *Proceeding of Annual Autumn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Architectural History*, 108.).

활발했던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전체적 경향은 고려 사찰의 흐름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6. 규모 및 지역

6.1 규모

연구대상사지의 전성기 최대 규모는 발굴조사에서 거의 확인 가능하다. 사역(寺域)의 범위는 건물지로서 증거는 남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규모를 크게 대·중·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정확한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대략 41개 중 10,000㎡ 이상인 대형사지는 22개, 5,000㎡ 미만인 소형사지는 13개, 10,000㎡ 미만 5,000㎡ 이상인 중형사지는 6개이다. 고려시대의 사찰들은 비교적 규모에 있어서 다양하게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한다. 그러나 중형사지의 수는 확연하게 적고, 대형, 소형사지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경향으로 볼 때 고려사찰은 대형 위주로 가는 경향과 소형으로 지어지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한다.

Table 10. Scale of Temple sites (Large: above 10,000m² / Medium: 5,000m²- 10,000m² / Small: bellow 5,000m²)

Size	Large	Medium	Small	Total
Number(%)	22(53.7%)	6(14.6%)	13(31.7%)	41

사원의 규모를 건립배경과 연관하여 살펴보면(Table 11) 왕실의 진전사원과 하산소 사찰들은 영국사지를 제외하고²²⁾ 모두 대규모의 사찰인 것이 보인다. 이는 개인에 비해 인력동원과 재정 확보에서 유리한 국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Lee, 1997; Lee & Lee, 1998).²³⁾ 반면에 일반사찰의 경우 소규모의 사지가 전체의 50%인 12건으로 대형(6건)이나 중형(6건)의 2배가 된다. 이는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개인이 조성한 사찰의 비중이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11. Number of temples by Function and Size

Function	Large	Medium	Small	Total
Jinjeon	6	0	0	6
Hasanso	10	0	1(?)	11
General	6	6	12	24
Total	22	6	13	41

6.2 지역

Table 12를 통해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연구 대상의 분포경향을 분석하였다. 경기, 인천지역의 사지들이 가장 많고(12개) 충청도(8개), 경상도, 부산(7개) 강원도, 전라도(각 5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역시 당시의 수도였던 개경에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된다. 물론 북한의 발굴사례가 적다는 사실이 감안되어야

22) 영국사지는 현재 전체 사역의 일부만 발굴된 것으로 보인다.
23) 국가에서 사찰 영건할 때에는 요역을 통해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비용도 국가 재정을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에서 조성한 사찰은 개인이 영건한 사찰에 비해 규모가 크고 영건기간이 짧으며 처음부터 계획에 의한 영건이 가능했을 것이다(Lee, 1997; Lee & Lee, 1998).

Table 12. Number of Temple sites by Location

Location	Number(%)	Location	Number(%)
Gyeonggi, Incheon	12 (29.3%)	Jeolla	5 (12.2%)
Chungcheong	8 (19.5%)	North Korea	3 (7.3%)
Gyeongsang, Busan	7 (17.1%)	Jeju	1 (2.4%)
Gangwon	5 (12.2%)		
Total			41

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평지보다 산지가 많이 분포하여 육로에서의 통행이 많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로가 주요 교통로로 많이 이용되었다. 고려시대의 사찰이 수로의 분포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수도인 개경과 경기도·충청도·강원도 지역은 영월에서 발원한 남한강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남한강 수로가 해로와 함께 당시 교통과 조운에서 중요한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여주 고달사, 원주 법천사, 거둔사 등 고려의 주요 사찰들이 이 경로에 조성된 점이 확인된다²⁴⁾(Mun, 2014; Jung & Jeon, 1999).

또한 시기에 따라 각 지역의 사찰창건 경향을 분석한 결과(Table 13) 고려 초기에 전 지역에서 활발히 불사가 조성되었지만 고려 말에는 불사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13-14C에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2개 사찰이 조성되었다. 이 2개는 선원사와 회암사로 모두 왕실 및 지배층에서 발원한 사찰이었다.

Table 13. Number of Temple sites by Location and Construction date

Area	Before 9C	9-10c	11-12c	13-14c	Total
Gyeonggi, Incheon	2	5	3	2	12
Gangwon	1	4	0	0	5
Chungbuk	2	3	0	0	5
Chungnam	3	0	0	0	3
Jeonbuk	0	2	0	0	2
Jeonnam	0	2	1	0	3
Gyeongbuk	2	1	0	0	3
Gyeongnam, Busan	1	3	0	0	4
Jeju	0	0	1	0	1
North Korea	0	2	1	0	3
Total	11	22	6	2	41

사찰의 건립배경에 따라서도 지역적 분포의 차이가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전사원은 주로 수도였던 개성부근에 조성되었고 일부 사례만 지방에서 조성되었다. 반면에 하산소 사찰은 나라 전체에 걸쳐 골고루 조성된 사실이 관찰된다. 이는 하산소의 목적이 지역과 종파의 균형유지, 종교적 중심지를 통한 지역의 사회적 안정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4) 남한강은 강원도 영월에서 시작하여 단양, 충주, 원주, 여주, 양평, 광주를 거쳐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에 유입된다. 이러한 남한강의 분류와 지류들에 인접하여 고달사, 법천사, 흥법사, 일명사 등 다수의 사원들이 위치하였다(Jung & Jeon, 1999).

7. 입지

7.1 지형

한반도는 전체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산은 사찰의 조성 시 배제하기 어려운 입지 여건이다. 본 논문에서도 정림사지(定林寺址)²⁵⁾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교외나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 사지가 조성된 지형을 평지, 산아래 평지, 산자락 경사지, 산위 경사지의 네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는데 지형정보를 위해서는 위치에 따른 등고선 지도 등을 활용했다. 산기슭에 위치한 사찰은 더 평지에 가까운 입지와 경사지를 활용한 입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산 아래 평지와 산자락 경사지로 나누었다. 산자락 경사지와 산위 경사지는 해발 200m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Table 14. Number of Temple sites by Topography

Topography	Flat1	Flat2	Sloped1	Sloped2	Total
Number	1	15	22	3	41

*Flat1: Flatland, Flat2: Flatland under the mountain
Sloped1: Sloped site at the foot of mountains
Sloped2: Sloped site inside mountains

연구대상 사지들의 입지분석 결과(Table 14) 평지 사찰과 산 위 경사지의 사찰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사지들이 산아래 평지와 산자락 경사지에 조성되었다. 평지보다 경사지에 사찰이 세워진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산에 인접한 지형 자체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조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별 사찰의 조성 입지를 보면 Table 15과 같다. 9C 이전에는 산아래 평지에 사찰을 조성한 사례가 우세했다가 9C 이후에 산자락 경사지에 조성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 중기와 후기로 가면서 계속된다.

Table 15. Number of Temple sites by Construction date and Topography

Construction date	Flat1	Flat2	Sloped1	Sloped2	Total
Before 9C	0	8	2	1	11
9-10C	0	6	14	2	22
11-12C	1	1	4	0	6
13-14C	0	0	2	0	2
Total	1	15	22	3	41

삼국시대부터 도시 내의 평지나 도시 인근의 평지에 기하학적 정형성을 유지하면서 사찰을 건립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9-10C를 전후에서 경사지에 사찰을 조성한다는 경향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회랑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기하학적으로 정형화된 회랑의 사용이 경사지일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볼 때에 9-10C가 불교건축에서 한 변화의 기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건립배경에 따라 사찰의 입지를 살펴보면(Table 16) 진전사원과 하산소 사찰은 산아래 평지와 산자락 경사지에 조성된 비중이 비슷한 것이 보인다. 일반사찰의 경우만이 경사지 분포가 분명하게 많아진다. 대체적으로 평지에 가까운 곳이 선호되었지만 상황적으로 경사지에 적응할 수

25) 정림사지는 삼국시대 백제의 도성인 사비에 조성된 사원이 후대까지 이어진 경우이다.

Table 16. Number of Temple sites by Function and Topography

Function	Flat1	Flat2	Sloped1	Sloped2	Total
Jinjeon	0	3	3	0	6
Hasanso	0	4	5	2	11
General	1	8	14	1	24
Total	1	15	22	3	41

밖에 없게 되는 과정이 보인다.

규모별 사찰입지를 분류해보면(Table 17) 대규모 사지는 산아래 평지와 산자락 경사지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소규모 사지에서는 월등하게 경사지에 조성된 경우가 많았다. 소규모의 일반사찰의 경우가 산지 경사지에 더 적합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산지 소규모 사찰은 평지 대형사찰보다 먼저 회랑으로 둘러싸인 정형적 배치를 고수하지 않는 사찰건립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향이 오히려 후대의 산지사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Table 17. Number of Temple sites by Size and Topography

Size	Flat1	Flat2	Sloped1	Sloped2	Total
Large	0	10	11	1	22
Medium	1	4	0	1	6
Small	0	1	11	1	13
Total	1	15	22	3	41

7.2 하천과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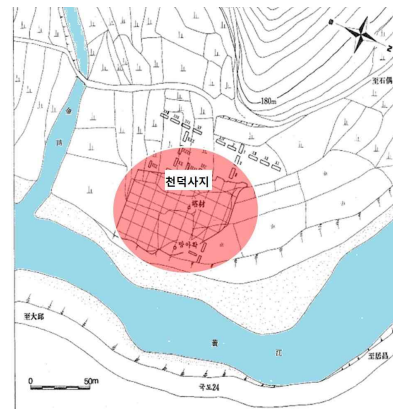


Figure 1. Topography of Cheondeok temple site (天德寺址)

Table 18. Distance between Temple sites and river

Distance(km)	under 1	1-2	2-3	3-4	Unclear	Total
Number	28	7	2	2	2	41

Figure 126)과 같이 사지가 강이나 하천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관찰된다. 사지와 가까운 하천의 거리를 지도를 통해서 측정해본 결과 확인이 안 되는 2개소²⁷⁾를 제외한 39개 중 3분의 2 이상인 28개 사지가 하천에서 1km 이내의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Table 18) 가장 멀리 떨어져 조성된 경우도 4km에 불과하였다. 1-2km 내의 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전체의 90%

26) Figure 1의 지형도는 천덕사지 발굴조사 보고서(Busan Women's College Museum, 1988)에 실린 것을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27) 흥왕사지, 불일사지

에 가까운 것을 볼 때 하천과의 거리가 가급적 가깝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개입되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찰의 입지가 강이나 하천에 가까운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식수공급 등 생활적인 문제 외에도 교통적인 문제, 풍수지리적인 이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대는 각 지역의 수로와 육로가 복합적으로 교통체계를 이루었다.²⁸⁾ 따라서 남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큰 강들은 육로를 대신하여 교통과 물자유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남한강 유역의 사원들은 강의 존재가 입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각 하천들이 큰 강들과 지류로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찰로 향하는 경로의 중간지점까지는 교통상의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고려시대의 사찰이 산중의 수행공간으로서의 의미 못지않게 사람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회적 역할 수행도 중요하게 담당하였다는 사실도 포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7.3 좌향

Table 19. Orientation of Temple site

Orientation	S	S-E	S-W	N-E	N-W	E	Total
Number	16	12	7	2	2	2	41

연구대상 사지의 창건당시 좌향²⁹⁾은 85.4%가 남향, 남동향, 남서향이다. 남향이 가장 많고(16개, 39.0%), 남동향(12개, 29.3%), 남서향(7개, 17.1%) 순이다.(Table 19) 이는 산자락에 위치시키면서도 가급적 남향하는 쪽으로 입지를 선정하려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찾아지는 경향이므로 같은 경향이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6곳에서 그 이외의 향이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는 역시 사지가 위치한 지형이 남향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풍수지리적 자연이해와도 관계있다.

Table 20. Change of Orientation by Reconstruction

Name	Original Orientation	Reconstruction date	Changed Orientation
Ingak	S-E	Early 10th century	W
Godal	S	Middle 10th century	Buildings facing East
Wonhyang	S-E	Early 11th century	N-E
Yeongam	E	Early 11th century	Image hall facing South
Sungseon	S-E	1182	Buildings facing East
Gwangrim	S-W	1122-1150	Bias in the west
Jangrak	S	12th century	W

28) 고려시대의 조세 운송과정의 경우 육로와 해로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조창까지의 운송은 육로로 조창에서 경창까지의 운송은 해로나 수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Han, J. (2007). The Research of 13 Rice-warehouses and Traffic Route near Them in the Goryeo Dynasty, *The Studies on Medieval History of Korea* (韓國中世史研究), 23(10), 153-190).

일부 대규모 사지에서는 중창과정에 의해서 사찰의 좌향에 변화가 생긴 경우를 확인하게 된다. Table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사찰이 중창을 거치면서 새로운 좌향을 갖게 되는 사지들은 주로 지형상의 이유로 기존의 좌향을 지키면서 확장 등의 변화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고려 중기인 11-12C에 나타난다.

8. 종합분석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발굴을 통해 배치가 확인되는 고려시대 사지유구 41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건립배경, 창건시기, 중창, 규모, 지역, 입지에 따른 특성과 함께 그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사찰들의 창건은 나말여초에 해당하는 9-10C에 창건된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고려 초기인 10C에 많은 사찰이 세워졌다. 물론 이것은 현재까지 발굴된 사지에 한정된 결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지가 발굴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1C 이후로 사찰 창건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중창된 사례의 수가 늘어난다. 고려 말에 해당하는 13-14C에 창건한 사례는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성한 선원사지와 회암사지 2개뿐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창건된 사찰은 수도 개경에서 가까운 경기, 강원, 충청에 조성된 사례의 수가 많았다.

연구대상사지의 건립배경 및 성격은 크게 왕실의 진전사원과 왕사·국사의 하산소 그리고 일반사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진전사원은 사원 내에 왕이나 왕후 등의 초상이 있는 진전을 설치하여 모시는 사원으로서 주로 개경이나 그 부근에 많이 조성되었다. 한편 왕사 국사의 하산소 사찰은 책봉이나 은퇴 시에 중앙에서 지정하는 사찰로서 지정과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중창을 하였다. 하산소 사찰은 주로 10C 이전에 창건되었고 중창은 고려 전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하산소 사찰에는 중앙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지방에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진전사원의 조성과 하산소 사찰의 중창은 대부분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는 왕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나머지 일반사찰에는 아직 그 건립목적이나 정확한 사찰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들이 포함된다. 일반사찰도 9-10C에 창건되고 11-12C에 중창된 사례들이 많다. 또한 일반사찰 중 소규모가 많은 것은 개인이 조성한 사찰의 비중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지의 입지를 살펴보면, 우선 지형적으로 산아래 평지와 산자락 경사지에 사찰이 주로 조성되었다. 산아래 평지에는 주로 대·중규모의 사찰이, 산자락 경사지에는 대규모와 소규모 사찰이 고르게 조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29) 창건 시 좌향이 불분명한 경우 중창가람의 좌향으로 추정하였다.

때 평지사찰의 경향에서 시대가 뒤로 갈수록 경사지 사찰로 이동되는 흐름을 찾아볼 수 있었다. 좌향은 남동향과 남서향을 포함한 남향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하천에 인접하여 사찰을 조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41개의 폐사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체적인 성격과 경향은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발굴사례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고려시대 불교건축의 전체적 성향의 큰 줄기를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더 연구가 진전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도 앞으로의 고려사찰 연구에 하나의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Busan Women's College Museum. (1988). *Cheondeok temple site* (居昌壬佛里天德寺址), 6.
2. Cheongju University Museum. (1986). *The Excavation Report on Heungdeok Temple Site in Cheongju* (淸州 興德寺址 發掘調查報告書), 87-88.
3. Han, K. (1983). Pro-Buddhist Policies of T'aejo of Koryo Changing Status of Military Rule, *Deagusahak*(大丘史學), 22(0), 77-79.
4. Han, K. (199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Buddhist Temples of Koryo Dynasty*(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Minjoksa*, 113, 222-225, 380-389, 392, 397.
5. Jung, J., Jeon, B. (1999). Study on the Location and Site Layout of Buddhist Temples Near Namhan-Kang River, *Proceeding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9(2), 601-606.
6. Kim, D. (2007). *History of Korea architectural*, Gimundang, 101-119.
7. Kim, S. (1985). *History and Design of the Early Buddhist Architecture in Korea*,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84-328.
8. Kim, S. (2014a). Site Layout of Koguryo Buddhist Temples of the 5th Century compared to the Excavated Cases of Chinese Templ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0(6), 157-167.
9. Kim, S. (2014b). Buddhist Temples of Single Pagoda-image Hall Pattern of Paekje Viewed through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with China and Koguryo,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0(8), 163-172.
10. Lee, B. (2009). *A study on the Temple economy in Goryeo Period* (高麗時期 寺院經濟 研究), Kyungin, 160-161, 455-491.
11. Lee, C. (1997).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a buddist temple in Koryo Dynasty*,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8, 26-60.
12. Lee, C., & Lee, K. (1998). A Study on the constructing character of the Buddhist Temple in Koryo Dynas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4(6), 112
13. Lee, K. (2006). The meaning and religious works of establishing Gaegyeong temples in Korea, *Journal of The Seoul Branch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8(0), 37-64.
14. Mun, G. (2014). *A study on the Tax Shipping System in Goryeo Period*, Hyeon, 75-78.
15. Park, M., & Kim, W. (2007). A Study on Formation and Transition of the Buddhist Stupa's Build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3(10), 108-109.
16. Park, N. (2012). The origing of Jinjeon Temple and the characteristic of Seongjeon Temple in Silla, *The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 41(0), 77-81.
17. Park, Y. (2006). *The Study of the Royal Preceptor and the National Preceptor during the Goryeo Period* (高麗時代 王師·國師 研究), Kyungin, 86-88.
18. Ryu, H. (2007). Construction background of Buddhist temple in Koryo, *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3(0), 162, 164-167.
19. The Buried Cultur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2006). *The Excavation Report on Hyeem Temple Site in Paju - 1st-4th* (波州 惠陰院址 發掘調查報告書 - 1次~4次), 65-72.

(Received Mar. 5 2015 Revised May 20 2015 Accepted Jul. 5 2016)